OCI, 폴리실리콘으로 녹색기업 인증

OCI가 폴리실리콘(Polysilicone) 기술로 국내 최초의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받았다.
OCI는 정부가 시행하는 녹색인증제에서 녹색전문기업과 녹색기술 인증을 함께 획득했다.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술로 산업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폴리실리콘 제조기술을 독자 개발한 OCI는 녹색인증 대상인 7-nine급 폴리실리콘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10-nine급 폴리실리콘을 제조하고 있으며, 11-nine급도 일부 생산하고 있다.
OCI는 폴리실리콘 제1공장과 제2공장의 생산능력이 총 1만7000톤에 달하며, 2010년 말 1만톤의 제3공장이 완공되면 미국 Hemlock에 이어 세계 2위 폴리실리콘 생산기업으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2011년 10월 5000톤의 추가증설을 완료하면 생산능력이 3만2000톤으로 확대돼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및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고성능 불연 단열재도 공급하고 있다.
OCI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은 신 · 재생 에너지 연구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녹색인증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8개 기관이 4월14일부터 공동 시행한 제도로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등 3대 인증이 있다.
OCI가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녹색전문기업은 녹색기술에 따른 매출비중이 30%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녹색인증을 받은 곳은 정부로부터 자금, R&D, 수출 · 마케팅 등 간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화학저널 2010/7/12>